



에덴뉴스

2019년 9月
통합 13-91호

03 에덴의 소식
에덴요양병원의
소식을 알립니다.

04 행복칼럼2019
류태희 목사가 전하는
희망과 행복의 메시지

05 치유스토리
암을 이겨내는 사람들의
생생한 투병이야기

06 에덴 마당
화이팅릴레이/나도 시인
웃어보아요/칭찬합니다



Health News 건강소식

생활습관의학(Lifestyle medicine) 7

아주 작은 습관이 가져오는 결과는 놀랍습니다. 의도적인 연습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작은 습관부터 이루어져야 전문가의 길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이들의 공통적인 삶의 성공스토리는 아주 작은 습관으로 시작해서 분명한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 실패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이유는 작은 변화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를 사소한 것으로 여기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목표에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목표에만 집중하면 주변을 보기가 힘들고 또한 중요하지만 사소하게 여겨지는 것을 무시할 경향이 있습니다.

< 행복해지는 작은 습관들 >



충분한 수면



단호하게 거절하기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은 피하기



좋아하는 디저트 먹기



완전히 나만의 시간을 갖기



포옹하기



울고 싶을 때는 울기



누군가를 돕기



작은 일이라도 스스로를 칭찬하기



아주 작은 습관을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루기 위한 과정에는 몇 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시간과 장소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 습관에 있어서 매일 정해진 시간과 그것을 실행하는 장소가 구체적일 때 좋은 습관으로 길들여지기가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여성의 경우 화장을 하기 전 피부 상태에 따라 잘 흡수되기도 하고 흡수가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굴에 팩을 붙이는 작은 습관이 메이크업에 유익을 준다면 그 작은 습관을 지속할 마음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셋째, 쉬워야 합니다. 처음부터 어렵고 힘든 것을 선정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결과가 만족스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 또는 아주 작은 습관이 암을 회복하고 건강에 자신감을 높여주는 시작이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만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주 작은 습관을 통해 아주 중요한 결과를 이루는 기회가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샬롬~



NEWS 에덴의 소식

뉴스타트캠프



8월 12~17일, 원목실 주관 뉴스타트캠프가 열렸다. 이번 캠프는 경인지역을 넘어 대전과 제주를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교포까지 폭 넓고 다양한 참가자들과 함께 진행되었다. 일주일 동안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생활을 경험한 참가자들의 몸과 마음에 변화가 감지되었고, 밝아진 얼굴 모습에서 영육의 회복에 대한 기대와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에덴요양병원은 지역교회 선교를 지원하고 협력하기 위해 매년 뉴스타트캠프를 기획하여 운영 중이며 교회 및 개인구도자들이 참가하여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

연합회 기관평가 실시



8월 13~14일, 연합회 기관평가를 실시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관평가위원들이 에덴요양병원을 찾아 체계적이면서도 전문적인 견해로 기관의 운영과 계획을 살펴보고 장기적인 발전방안을 제안했다.

영화, 드라마 촬영

8월 22~23일, 영화 '출장수사'의 촬영이 있었다. 출장수사는 2020년 상반기 개봉 예정이다.



또한 28~29일에는 채널 OCN 드라마 '모두의 거짓말' 촬영을 진행했다. 모두의 거짓말은 오는 10월 방영될 예정이다.

에버그린센터 윤태경 사회복지사 표창수여

에덴요양병원 에버그린센터(시설장 이경훈) 윤태경 사회복지사가 9월 4일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남양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의회장 표창을 받았다. 윤태경 사회복지사는 평소 꼼꼼한 성격으로 어르신들과 눈높이를 맞추어 입소자들의 건강과 유익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남다른 열정으로 봉사하고 있다.



직원동정

♥ 수고하셨습니다 ♥

- 정혜순(간호부) 8월 31일 부
- 장윤석(진료부) 8월 31일 부
- 손덕수(영양과) 9월 30일 부



행복칼럼[23] 원목실장 류태희

“핑거 보울의 물을 마신 여왕”

핑거보울(finger bowl): 식사전 손을 씻기 위해 담아 놓는 작은 물 그릇을 말한다.



“공홀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공홀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 5:7)

1972년 히로히토 일본 왕이 재위 중 처음으로 영국을 공식적으로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여왕 엘리자베스 2세와 남편 필립공, 그리고 왕족 등이 참석한 공식연회가 열렸습니다. 연로한 히로히토 왕은 식탁에 이것저것 요란하게 깔려 있는 영국의 상차림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그는 별 생각 없이 자기 앞에 있는 핑거보울을 들어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핑거보울은 음식을 먹기 전 살짝 손을 씻으라고 둔 작은 물 그릇이었습니다. 연회에 참석했던 다른 사람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무슨 망신이야? 핑거보울 물을 마시다니 서양식 식사 매너도 모르나?” 히로히토 왕도 그제야 눈치를 채곤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엘리자베스 여왕은 태연하게 자신의 핑거보울을 두 손으로 잡더니 히로히토 왕처럼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앉아 있는 필립공의 옆구리를 슬쩍 찔렀습니다. 남편 필립공도 아내 엘리자베스 여왕을 따라 했고, 여왕 부부가 핑거보울의 물을 마시는 걸 본 다른 참석자들도 일제히 핑거보울을 들어 꿀꺽 꿀꺽 마셨습니다.

히로히토 왕은 영국인들의 배려에 너무나 감동한 나머지 귀국 하자마자 초등학교 도덕시간에 그 일을 모범적인 예의의 사례로 가르치라고 지시했으며 일본 초등학교의 바른생활 교과서에 실렸다는 이야기가 전해 오고 있습니다. 만일 엘리자베스 여왕이 엄한 궁중 예법대로 핑거보울에 손가락을 씻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본 왕은 망신을 당했다고 느꼈을 것이고 예절이 확실한 신사의 나라 영국에서 겪은 수치를 평생 잊지 못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핑거보울 사건은 영국과 일본이 서로 2차 세계대전의 앙금을 깨끗이 털어내고 예전의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히로히토 일본 왕 외에도 서양식 테이블 에티켓에 익숙하지 못한 페르시아의 왕, 중국과 인도의 지도자들, 아프리카의 부족장들도 영국에 초청되었을 때 영국 왕궁의 만찬장에서 비슷한 실수를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영국 여왕은 핑거보울에 든 물을 그들과 함께 마셨습니다. 손님의 실수를 따뜻하게 덮어 주는 여왕의 이런 사려 깊은 태도는 그녀에 대한 존경심을 더욱 높였고, 다른 어떤 외교 활동보다 영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53개 영연방 국가의 상징적인 국가 원수이자 구심점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것도 그녀의 이런 따뜻한 인품에 힘입은 바가 크지 않았을까요?

필자가 삼육서울병원 원목실에서 근무할 때 있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어느 식사 장소에 병원장님(고 김광두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장님 바로 곁에서 식사를 하는데 제가 젓가락의 실수로 인하여 반찬을 식탁에 흘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깨끗한 흰 종이로 식탁을 깔아 놓은 곳이었지만 미안한 마음, 부끄러운 마음과 함께 내 실수를 그냥 버려두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병원장님이 그 모습을 보시더니 조용히 내가 흘린 반찬을 자신의 젓가락으로 집더니 당신 자신이 잡수시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실수를 완전히 제거해 버리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도 내 이웃의 실수나 잘못을 용서해 주고 덮어 주며 조용히 삼켜 주는 자가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이웃의 허물과 실수를 용서하고 이해하며 용기와 격려를 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성도들이 해야 할 덕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실수와 잘못이 있을 때 자기 자신도 같은 실수와 잘못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배려하는 사람은 원수도 친구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 7:12)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마 6:12)



STORY 투병이야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깨끗합니다.”

김정란

직장생활을 하며 바쁘게 생활하던 나의 몸에 갑작스럽게 이상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화장실을 찾아도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고 작고 가늘게 나오기가 일쑤였으며 혈변이 섞여 나오는 등 정상적인 배변이 안 되어 걱정스런 마음으로 작년 2월 18일 인근 병원을 찾았다. 검사결과 직장암 3기로 임파선까지 퍼졌다고 했다. 종양은 3cm로 항문에서 1cm 위치에 있어서 수술 후 평생 장루(인공항문)를 차야 한다고 했다. 믿어지지 않았다. 두려웠다. 그래서 수술을 안 하고 회복하는 방법을 생각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에덴요양병원을 소개 받아 지난 3월 5일 입원을 했다.

그동안 참으로 바쁘게 살았다. 앞만 보며 살아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며 살라고 에덴에 인도하셨나 싶었다. 아름다운 에덴병원생활은 공허한 내 마음에 안정과 기쁨을 주었고 마치 고향에 온 듯 편안한 생각이 들었다.

에덴요양병원에 입원한 후 열을 이용해 암을 고사시키는 고주파온열암치료와 면역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치료 등 병원에서 시행하는 각종 치료는 거의 빠짐없이 했다. 특히 새벽기도회를 비롯해 각종 예배 시간은 빠지지 않고 참석하며 말씀을 들었다. 개인적으로는 하루 세 번 산에 올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을 주님께 드렸다.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 속에 감추어 두었던 더럽고 추한 것들이 생 각났고 여리고 성이 무너졌듯이 나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하기 위해 회개하는 기회로 삼았다. 기도 중에는 다른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울며 매어 달렸다.

에덴에 입원하고 2개월이 지난 후 다시 삼성병원을 찾아 “어차피 인공항문 달고 평생 살아가야 한다면 다른 치료는 하지 말고 수술만 해 주세요” 하고 교수님께 내 마음을 표현했다. 교수님은 계획이 바뀌었다며 수술 전에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하면 나중에 수술하고 나서 후유증도 적고 재발의 위험도 줄어들며 아주 드문 일이긴 하지만 암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암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말에 용기가 생겨 항암치료를 시작했다.

먼저 항암치료 3회를 하고 방사선 22회, 그리고 방사선 끝나기 전 항암 3회를 시술했다. 치료 과정은 정말 표현할 수 없이 힘든 시간이었다. 방사선치료 중 2도 화상을 입어 걸을 수도, 앉을 수도 없는 고통이 유발되었다. 계속되는 고통은 울고 또 울면서도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게 만들었다.

원래 나의 치료계획은 항암과 방사선을 끝내고 9주 후인 8월 24일에 수술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다. 수술을 위해 8월 5일에 CT, PET, MRI, 초음파, 혈액검사 등 모든 검사를 하고 8월 16일에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나에게 삼성병원 대장센터 김희철 교수의 설명은 마치 하늘을 나는 기분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

“김정란씨, 검사결과가 아주 좋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깨끗합니다.”

예정된 수술을 취소하고 병원문을 나서는데 너무 가슴이 벅차고 감격스러워 말을 할 수가 없었고, 아무 것도 귀에 들리지 않았다. 차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릴 때, 참았던 눈물이 솟구쳐 소리 내어 펄펄 울었다.

눈물로 간구하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만난 38년 된 병자에게 회복의 감동을 주셨으며 죽은 나사로에게 새 생명을, 문둥병 환자에게 어린아이의 살결을, 눈 먼 소경에게 광명을 선물하신 일들이 성경 속의 기적으로만 생각했던 부족한 나에게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시며 새 삶을 살게 하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허락하심이 있었기에 나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 같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며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린다.

이렇게 글을 나누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이 가슴 벅찬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이다. 나의 이 경험이 에덴요양병원 환우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주어진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질병을 정복하시길 기도 드린다.

마지막으로 웃음치료 남태희 선생님과 환우를 위해 친절하게 도와주는 간호사들, 또한 하루에 몇 번을 마주쳐도 항상 웃으며 인사하는 환우들, 모든 분들이 나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사랑으로 영원히 간직하게 될 것 같다.

에덴의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FOOD

우수 식재료 디렉토리

울무

울무는 전분이 많고 단백질과 필수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함유한 식품으로 과거에는 구황작물의 일부로 사용되었으나, 약리성이 있고 과다 복용 시 부작용이 있어 현대에 와서는 주식보다 약재나 차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알곡 형태로 밥에 넣어 먹거나 가루로 만들어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으며, 차로 마시기도 한다. 울무의 종자를 한방에서는 의이인(薏苡仁)이라고 하여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이뇨, 진통작용이 있어 몸 속 노폐물을 배출하여 부종을 없애주고, 신경통, 방광 결석 등을 치료하는 약재로 사용되기도 한다.



울무는 탄수화물(70.5%), 단백질(15.4%), 지질(3.2%) 등과 무기질,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다. 다른 곡류에 비해 지방함량이 비교적 높은 편이며, 비타민 B1, B2, 철분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신진대사를 돕는 작용을 하고,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예방해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다. 또한 루테인이 풍부하여 눈 건강 유지에 도움을 주고, 류신과 알라닌, 글루탐산, 프롤린 등의 아미노산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각종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어 피부미용에 효과적이고 해열과 진통 효과, 이뇨작용을 하고 인슐린 분비 촉진으로 당뇨병에도 도움을 준다. 풍부한 칼륨은 부종을 줄이고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준다.

단, 울무를 과다 섭취할 경우 구토, 복통, 설사를 유발할 수 있고, 자궁을 수축시키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임신부는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TODAY 따뜻한 하루

점 하나의 긍정의 힘

우리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진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사람의 인생마저 괴롭히는 '고질병'에 점 하나 찍으면 '고칠병'이 됩니다.

연약하고 작은 마음(心)에 굳건하고 당당한 신념의 막대기 하나 꽂으면 무엇이든 반드시(必) 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이 시도해 보지도 않고 불가능(Impossible)하다고 여기는 일이라도 점 하나 찍으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I'm possible)

당신의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 검게 짓누르는 '빛'에 점 하나를 찍어보면 당신의 앞날을 하얗게 밝혀주는 '빛'이 됩니다.

~~~~~  
청력을 잃은 베토벤이 그 후에도 수많은 걸작을 작곡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 속에 할 수 있다는 긍정의 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절망과 고난을 극복한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바로 그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은 바로 여러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꿈은 어느 곳에도 없다고 (Dream is nowhere) 생각되는 인생이라도 단 한걸음의 띄어쓰기만으로 꿈은 바로 여기 있다고 (Dream is now here) 말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부정적인 것에 찍는 긍정의 점은 다른 곳이 아닌 당신 마음에 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그 하나의 획은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불가능한 것도 한 순간에 가능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출처 : 따뜻한 하루 / www.onday.or.kr

## 칭찬합시다 COMPLIMENT

박은진 간호사님을 칭찬합니다.

항상 단정함과 웃는 모습으로 환자들에게 다가 오는 모습이 아름답고, 주사도 아프지 않게 놔 주셔서 좋습니다. 씩씩하고 시원시원하게 대해 주셔서 칭찬드립니다.

- 104호 이선희



서두심 환우님을 칭찬합니다.

항상 봐도 연약한 환우들을 잘 살피어 농사 지은 것을 챙기고 나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모습을 칭찬드립니다. 옥수수 찌서 입맛 잃은 환우들을 챙기고 오이, 호박 등 잘 챙겨주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 104호 김영옥



## FIGHTING 화이팅릴레이

천연치료실 신강순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에덴요양병원에서 기쁜 일만 일어나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가끔은 눈물도 흘리지만 슬퍼서가 아니고 단언컨대 기뻐서 나오는 눈물 일 것입니다. 에덴에 와서 가장 좋은 것은 맘의 고향에 온 느낌입니다.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니 매일이 기쁨으로 넘쳐납니다.

하지만 언제나 웃을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이라 상하의 관계도 있고, 같이 근무하는 사람과의 의견 차이도 있습니다. 또 얼굴을 찡그리고 맘에 상처를 남기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서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 나의 죄된 성향이 올라오고 억울해서 그들과 똑같이 험한 말을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생각하면 절대로 남에게 욕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겹옷을 제비 뽑고 최고 흉악범에게 내리는 형벌을 받으셨으니 그 벌은 죄된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이었습니다. 남에게 받는 맘의 상처는 내가 그것을 수용하였기 때문에 내게 들어와서 내 몸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 뜻은 내가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남의 심한 말이 내게 영향을 주지 않게 예수님께 나아 가고 기도로서 맘의 평화를 얻읍시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지 공활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엡 2:3-5)

화이팅릴레이는 에덴직원들이 환우 여러분께 전하는 응원입니다.  
신강순님이 지목한 다음 주자는 '간호부 홍영주님'입니다.

홍영주님을 칭찬합니다. 언제나 싱글벙글 환우들을 대할 때 웃음을 잃지 않은 선생님을 볼 때마다 우울했던 마음이 나도 모르게 모든 아픔을 잊어버릴 수 있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칭찬합니다.  
- 112호 김미자

박은진 간호사님을 칭찬합니다. 환우들을 대하는 태도에 감동받습니다. 친절하시고 예의 바르고, 불편한 사항을 대할 때도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시려는 자세에 감사드립니다.  
- 112호 소정연



간호사님들을 칭찬합니다. 불철주야 하루도 쉬지 않고 업무에 임하고 계시는 간호사님들을 사랑합니다.  
- 114호 고영철

## 나도 시인

에덴 심터

김순이

무엇이 그리 바쁘던가  
한 번쯤 쉬어가면 어떨까  
기계도 기름칠하고 쉬게 해 주야  
별 무리 없이 잘 돌아가지 않는가

너무 많은 걸 짊어지고

하나라도 내려놓으면

큰일날 듯 하지 말자

어차리 빈 손으로 가는 것을

한 번쯤 모두 내려 놓고 쉬어가자

잠시 짚어보는 내 삶의 심포는 어떤가

브레이크 없는 내 삶이

너무 안쓰럽지 않은가

좋은 의사가 없어서 죽는 거 아니요

좋은 약이 없어 죽는 거 아니고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나니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잘 사는 법보다

바르게 사는 법을 배우자

에덴 심터에서



편집후기

오늘을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들과 만납니다. 그 만남 속에 내 마음의 생각여부에 따라 사람과의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하고 거리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좋게 생각한다는 확신은 거리감을 확실하게 좁혀 주고, 만나면 얼굴 표정이 달라 집니다. 그러나 누군가에 의해 차별을 받는다면 미움을 받 는다는 의심이나 확신이 들 때는 그 사람의 생각과 관계 없이 서먹서먹해지고 시선을 회피하거나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게 됩니다. 좋은 생각과 긍정적인 마인드가 치료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증거입니다. 좋은 말과 좋은 생각으로 환경을 바꾸는 삶으로 성공적인 치료가 이어지기를 응원합니다.

- 에덴뉴스 편집장 행복돌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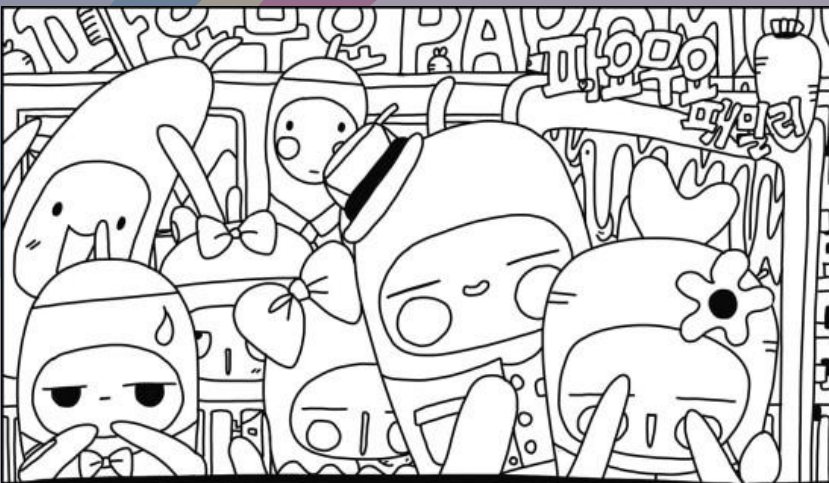
에덴요양병원은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홈페이지 [www.edenah.com](http://www.edenah.com)
- 블로그 [blog.naver.com/edenah](http://blog.naver.com/edenah)
- 유튜브 [www.youtube.com/user/TVEdenah](http://www.youtube.com/user/TVEdenah)
- 페이스북 [www.facebook.com/Edenhospital](http://www.facebook.com/Edenhospital)
- 트위터 [twitter.com/Edenhospital](http://twitter.com/Edenhospital)

검색창

절 취 선

숨은 그림 찾기



이름 :                      호실 :                      호

- ♥ 숨은그림찾기 정답과 칭찬의 글을 원무과로 보내주시면 매월 1분 씩 추첨하여 매점상품권을 드립니다.
- ♥ 접수마감일은 9월 25일이고, 숨은그림찾기 정답과 칭찬의 글을 모두 작성하면 당첨확률이 높아져요.
- ♥ 지난 호 당첨자  
104호 이선희, 112호 김미자, 소정연

(                      )님을 칭찬합니다.

칭찬사연을 자세히 남겨주세요

---



---



---



---



---

